

# 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  
례안」에 대해 직접 설명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 역시 학령인구의 감소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여러 학교들이 폐교되거나 통폐합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의 염강초, 공진중, 광진구의 화양초, 도봉구의 도봉  
고, 성동구의 덕수고, 성수공고 등 많은 학교들이 이미 폐교되었  
거나 폐교 절차를 밟고 있으며, 강서구 경서중학교 역시 통폐합  
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통폐합만이 유일한 해답이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학교는 단순히 교육의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그만큼 학교의 특성과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서울형 작은 학교' 사업을 통해 소규모 학교들의 교육력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형 작은 학교' 사업의 효과성은 2022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신입생 증가와 지역사회 만족도 증진 등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정책으로 평가되었으며, 학교 교육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큼니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타 시도처럼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없으며, 작은 학교를 유지하는 것과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상충할 수 있다는 점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역사성, 지역 간 교육 격차 등을 고려하면 작은 학교의 유지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작은 학교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작은 학교들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조례가 ‘서울형 작은 학교’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적정 규모화와 균형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